

# 신동빈의 롯데지주, 케미칼·제과 날개 달고 비상할까

(롯데그룹 회장)

케미칼 계열사 편입 가능성 ↑  
해외법인 3곳, 제과 현물 출자  
실적·배당 '두마리 토끼' 평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재라는 악재를 딛고 롯데지주의 주가가 양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온 가운데 남은 과제로 금융 계열사 지분 문제와 롯데케미칼·호텔롯데 등의 계열 편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계열사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지주의 금융사 매각 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와서다. 또 3개 해외법인(라하트·길리안·콜손)의 롯데제과 현물출자도 신의 한 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지배구조의 한 고리를 완성하고, 실적과 배당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면 신동빈의 '뉴롯데'를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주사 미완의 퍼즐 '롯데케미칼' 사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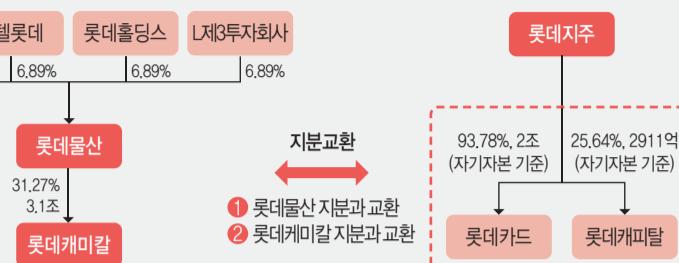
16일 증권가와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금융사 지분을 활용해 롯데케미칼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롯데지주나 롯데케미칼 주가 상승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한다.

롯데지주는 국내 계열사 91개 중 51개사를 편입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지주의 지분 13.0%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롯데지주 신하 계열사를 확고히



롯데지주 보유 롯데카드·롯데캐피탈 지분 교환 방안

오너일가 6.89%, 호텔롯데 6.89%, 롯데홀딩스 6.89%, L제3투자회사 6.89%



\*자기자본과 지분율은 2018년 6월말 기준, 시가총액은 9월 12일 기준.

롯데지주



자료/DART, 한국투자증권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가 걸림돌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 투자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어 '원 롯데'에 아킬레스건으로 불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롯데"의 완성은 롯데지주가 화학계열사와 호텔 및 관광 계열사를 편입하는데 있다. 현재는 유통, 식품 계열사만 품은 '반쪽 지주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계와 증권가는 롯데지주의 금융사 매각 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케미칼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회장이 그리는 '뉴 롯데'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롯데 2013년 말 기준 롯데그룹내 이익기여도가 22%에 불과했지만 현재(작년말 기준) 54%로 그룹 절반 이상의 이익이 롯데케미칼 등 화학부문에서 나온다. 유통부문 기여도는 26%로 줄었다.

인수 부담도 덜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27만7000원(9월 12일 연중 최저가) 까지 추락했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주가 부진은 자회사를 편입할 수 좋은 기회다"면서 "연말 이전에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롯데지주의 인수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연말(배당기일) 이전 편입시 지주는 롯데케미칼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롯데지주는 신규 투자, 추가 사업개편(지분 매입 등)을 위해 현금재원이 필요하다. 배당은 매력적인 재원이다.

롯데케미칼의 2017년 배당성향은 16% 이지만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면 그룹의 중장기 배당 목표인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롯데케미칼의 2018년 예상 순이익 2조원, 배당성향 30%, 지분율 31.27%를 가정할 때 롯데지주의 배당수익은 약 1946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롯데지주가 금융사(2조3000억원) 지분을 롯데물산에 매각하고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31.3%)과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방법은 일본 롯데홀딩스로 금융계열사를 매각하고 롯데지주가 롯데물산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물산은 자회사, 롯데케미칼은 손자회사가 된다. 향후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의 추가합병을 통해 롯데케미칼을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주가 트리거는 롯데제과에 3개 해외법인(라하트·길리안·콜손)의 현물 출자다. 롯데제과 지분은 기존 21.4%에서 48.4%로 높아진다. 2019년 롯데제과의 예상 순이익은 1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1% 증가가 예상되는데, 48.4% 수준인 547억원이 2019년 롯데지주의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신동빈의 꿈… 문제는 '호텔롯데'

그룹의 차기 IPO 주자들에게 관심이쏠리고 있다. 롯데지주 출범 이후 첫 번째 기업공개(IPO) 주자로 나선 롯데정보통신이 증시에 무난히 안착했다는 평가다.

코리아세븐을 비롯해 롯데GRS(롯데리아), 롯데컬처웍스(전 롯데쇼핑 시네마

사업본부), 대홍기획, 롯데건설, 한국후지필름 등이 후보군이다.

올 상반기 롯데컬처웍스가 배급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신과 함께-인과연'가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실적 상승 청신호를 켰다. 롯데컬처웍스는 올 2분기 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으며 매출은 1500억원(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에 그쳤다. 베트남에서도 13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해외 사업의 부진도 이어졌다.

코리아세븐과 롯데GRS 또한 가능성 이 높은 차기 주자들이다.

편의점이나 외식 업종은 모두 현금 유동성이 좋은데다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실적 선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점포 출혈 경쟁 등 시장 변수가 있었다.

가장 큰 관심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겉으로는 롯데지주가 그룹의 중심이지만 지배구조 상으로는 호텔롯데가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신 회장이 약속한 경영 투명성 강화와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의 IPO는 필수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호텔롯데는 일본롯데가 지분의 97.2%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이다. 롯데물산 주식의 31.1%를 비롯해 롯데알미늄(25%), 롯데케미칼(12.7%) 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지주의 주식도 8.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의 실형으로 '오너 부재'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은 선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시민 80% 명절 성차별 겪어

### 1위는 "여자만 하는 가사노동"

남녀가 꼽은 명절 성차별 사례 1위는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6일 '서울시 성평등 생활 사전\_추석특집'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4~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1170명의 시민으로부터 1275건의 의견을 접수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여성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성평등 생활사전을 발간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명절에 성차별 언어나 행동을 겪은 경험 있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명절 성차별 1위로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53.5%)을 꼽았다. 성별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여자가~', '남자가~' 발언(9.7%), 결혼을 권유하거나 화제로 삼는 '결혼 간섭'(8.1%), 남성과 여성 따로 상을 차려 식사하는 '남녀 분리 식사'(5.4%)가 뒤를 이었다.

성차별 사례로 여성이 꼽은 1위는 '가사분담'

(57.1%)이었다. 이어 '결혼 간섭'(8.9%), '여자가, 남자가'(7.9%), '남녀 분리 식사'(6.5%) 순이었다.

남성 역시 '가사분담'(43.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여자가, 남자가'(14.4%), '남성 부담'(13.3%), '결혼 간섭'(6.1%), '제사문화'(4.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추석 명절부터 '시댁'을 '시가'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남성 쪽 집안만 높여 부르는 시댁을 여성 쪽 집안을 부르는 처가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에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상처가 되는 언어와 행동 대신 성평등한 언어와 행동으로 명절 선물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과 함께 '성평등 생활사전'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이 꼽은 1위는 '가사분담'

/김현정 기자 hjk1@



실패를 넘은 희망의 메시지  
바라보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2018 실패박람회를 방문해 시민들이 작성한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 보안업계,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 개발 분주

#### 홍채·목소리 등 인증시스템 개발

#### 다양한 전자서명으로 선택권 확대

지난 11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안 관련 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시장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인증수단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그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독점적인 지위와 액티브X 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다. 국회의 동의가 남아있지만 업계

는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이 폐지돼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1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업체들은 공인인증서 시장에서 활용되던 솔루션을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암호인증, PC보안 및 모바일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라온시큐어는 파이도(FIDO)를 통해 보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도는 비밀번호 대신 지문, 홍채, 목소리, 얼굴인식, 장정맥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최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니텍은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사가 보유한 기술적 차별성이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컴시큐어는 공인인증서 폐기에 대비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생체인증, 사물인터넷 보안 확대에 따른 암호 키 관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컴시큐어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암호 키 관리 솔루션 '제큐어키매니저'를 구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짐에 따라 사설인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며 업체들은 믿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보안과 편의성 중심의 기술 개발에 힘쓰면서 자연스레 보안시장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